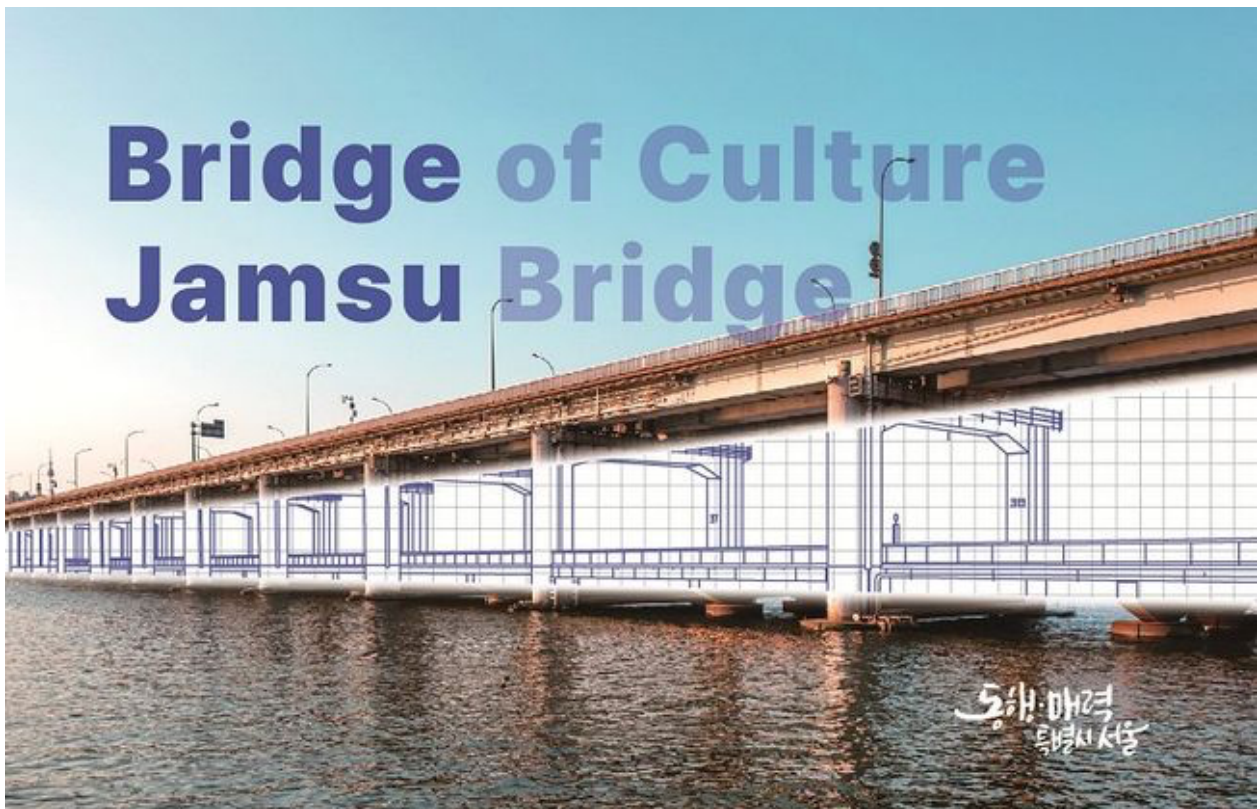


# 걸어서 한강 건넌다...잠수교, 한강 최초 문화·여가 공존하는 보행교된다

29일부터 기획디자인공모에서 선정된 5개팀 '문화의 다리, 잠수교 설계공모' 참여

2026년에는 한강을 뚜벅뚜벅 걸어서 건널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잠수교를 한강 최초의 차없는 보행전용 다리로 전환하기 위해 29일(목)부터 `문화의 다리, 잠수교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시민의 삶을 바꿀 매력적인 잠수교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잠수교를 한강 최초의 차없는 보행전용 다리로 전환하기 위해 29일(목)부터 `문화의 다리, 잠수교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시민의 삶을 바꿀 매력적인 잠수교 만들기에 나선다.

2026년 상반기까지 한강다리를 시민과 문화, 여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국제적인 수변감성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게

획이다.

잠수교는 한강 교량 중 길이가 가장 짧고 한강 수면과 가까우며, 도보로 다리로 진입하기 쉬워 보행교로서 큰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다.

이번 설계 공모에서는 지난해 9월 ‘잠수교 전면 보행화 기획디자인 국제공모’ 참가작 99개 팀 중 심사를 통해 당선된 ▲박종대(내러티브스튜디오) ▲양성구(에테르쉽) ▲박혜주(디자이너 스페이스) ▲크리스토프 보글(청보글) ▲닝주 왕(아크 미스트) 5개 팀이 참여해 실시설계권을 두고 경쟁에 나선다.

최종 당선자는 5월 발표 예정이며, 최종 선정작을 대상으로 잠수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수행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기획디자인 공모’는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고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혁신적인 공공건축 사업방식이다.

전문가로부터 아이디어와 그에 따른 공사비, 공법 등을 제안받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구조다. 이후 기획디자인 공모 입상자를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설계 공모의 핵심은 창의적이면서 서울의 매력을 극대화한 디자인·설계와 보행교로 전면 전환되는 잠수교 목적과 환경에 맞는 365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전략 제안이다.

또 잠수교 중심 보행네트워크 완성은 물론,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자전거와 개인이동수단(PM) 이용자와 보행자들간 안전성도 확보해야 한다.

운영방안과 콘텐츠 및 공간·시설계획은 단기·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제안해야 하며 단기사업은 '26년 4월내 준공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 수변 명소가 될 잠수교 설계공모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심사를 펼칠 예정이다.

신창훈 건축사(운생동건축사사무소 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김재경 교수(한양대학교) ▲박희찬 대표(스튜디오 히치) ▲양수인 대표(삶것 건축사사무소) ▲조항만 교수(서울대학교) ▲최윤희 대표(바래건축사사무소) ▲송수진 교수(고려대학교) ▲최도인 본부장(메타기획컨설팅)이 맡았다.

시민들에게 잠수교의 변화된 모습을 미리 경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 5월부터 개최 예정인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서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VR) 전시 공간’을 마련해 문화의 다리, 잠수교를 체험할 수 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잠수교는 시민들이 한강을 좀 더 가까이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한강 최초의 보행교이자 문화의 다리인 잠수교가 서울의 매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창의적·혁신적인 모습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